

좌파 사회혁명당-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의 선언문 및 통합 발표문

심장중의강철

между трудов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ей и трудовыми массами города и деревни на платформе Трудовой Республики. РГАСПИ. Ф. 564. Оп. 1. Д. 10. Л. 32-38. Машинопис. копия.

ДЕКЛАРАЦ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БЮРО ПАРТИИ ЛЕВЫХ ЭСЕРОВ- (ОБЪЕДИНЕННЫХ)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И СИНДИКАЛИСТОВ И ЦЕНТ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ИАТА СОЮЗА ЭСЕРОВ-МАКСИМАЛИСТОВ С СОПРОВОДИТЕЛЬНЫМ ПИСЬМОМ МЕСТНЫМ ПАРТИЙ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8 сентября 1922 г.[1]

우리의 강령은 수많은 토론과 실패 끝에 각 연합들이 만족할만한 하나의 통일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연합의 이름이 너무 거추장스러운데[2]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조직, 모든 단체들, 소규모든 지방에 있어 흩어져버렸던 우리 좌파 조직들이 무너지고 사라진 지금. 나로디즘[3]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남은 우리 조직들이 모두 연대하여 혁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결을 위해 하는 노력 하나 하나가 우리들의 연대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적어도 모스크바에서는 그랬습니다.

사회혁명당과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들의 모스크바 조직에서 우린 여러 회의를 거쳤고 저번 회의에 이는 다음 총회에서는 "조직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우린 이 토론 끝에 나온 이 엄숙한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사회혁명당과 그 기타 조직들은 모두 단일 조직으로 뭉칠 것입니다. 이 통합은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동지들을 고무시킬 것이고 혁명에서 은퇴한 동지들이 다시 혁명에 가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비에트 선거입니다. 우린 이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선거는 필시 제 2인터내셔널[4]의 재림일뿐이라며, 지극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가담하는 것이며 이는 제 2인터내셔널의 재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처럼 사회주의의 또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좌파 나로드니키는 계급투쟁, 비타협적 전술, 부르주아와의 연대 거부, 사회혁명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등 국제적 노동조합이 이 때까지 쌓아올렸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개량주의적 인터내셔널 전술을 거부할 것이며 이를 주장하는 이들과 우린 어떠한 형태의 연대든 거부할 것입니다. 투쟁!

노동자 계급의 혁명정신을 말소시키던 그 강령. 투쟁의 의지와 경제적 해방을 위한 열망을 무너뜨렸던 그 제 2인터내셔널의 강령은 곧 사회주의의 몰락이자 부르주아에게 통합되고 민족주의적 제국주의자가 되는 길만을 낳았습니다. (만약)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이 일찍이 제 2인터내셔널의 길로 갔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좌파의 승리의 대한 희망이 국제 혁명에게 직면되었을 때 프롤레타리아들이 우리의 대한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몰락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직들의 통합에 대해서는 행정부 확대 논의에서 재차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빈 국제 위원회의 다음 대회에서 우리 좌파 나로디스트들은 제 2 인터내셔널로의 재림 보여주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좌파 최대주의자들과 좌파 사회혁명당 당원들이 내린 본질적인 결론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도덕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연대로서 더 강해질 조직은 분열되어 고통받고 있는 동지들을 묶어줄 희망이라는 의미에서 그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물론 모든 동지들이 이에 찬성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동지들은 우리 선언문을 꼭 읽어보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앙 위원회에 꼭 전달해주시요 지방에 있는 모든 좌파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더 나은 방식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요. 우리들의 이 통합 강령에 가장 기초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우리 중앙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넣어드릴테니 꼭 부탁이오니 의견을 꼭 전해주시요

모든 동지들을 위해서!

ЦБ Объединения партии левых с.-р. и Союза с.-р.-максималистов.

1922년 9월 8일 모스크바.[5]

좌파 사회혁명당의 모든 당원과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에 있는 모든 노동자 인민들에게

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혁명의 물결이 전례없이 쇄퇴의 길을 겪고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반동"의 강화를 겪고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7년간 이어지는 세계대전과 내전 속에서 노동자 대중의 피로감으로 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파국적인 고통을 겪어야했으며 악몽과도 같은 기근을 겪어야했습니다.

둘째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성입니다. 혁명의 방향이 맨세비즘과 타협주의자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 운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독일 사회민주당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아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한 "개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코민테른은 입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자들의 단체 역시 타협 전술을 내걸고

있습니다.

셋째는 10월 혁명에 대해서 공산당의 사회주의자 억압 정책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와 노동자와 농민간의 연대를 모두 끊고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모조리 부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 경제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지금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들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부르주아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혁명으로 집권했던 사회혁명당이 무너졌고 이제 "사회 혁명"이라고 할 조직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혁명의 유언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유언에 충실하게 따르기로 한, 사회주의 혁명을 잊지 않은, 사회주의 정신과 기초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경제적 최대주의자들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파 사회혁명당과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은 다시 한번 또다시 단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공화국"과 혁명적 사회주의와 최대주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항한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 말입니다.

그 18년[6]에서부터 이어진. 수많은 고통과 탄압에도 우리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들이 피로서 막아서며 지켜내던 "노동공화국"이라는 가치, 모든 경제의 사회화, 비타협적 사회혁명. 단 한 번도 부르주아와 타협도 화해도 하지 않으며 방어적으로 탄압하지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던. 1906년[7] 사회혁명당 국제 회의에서 최대주의의 가치를 드높게 내건 연합은 1907~1917년의 억압에 맞서 2월 혁명과 10월 혁명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의 화염에 맞서 그 화염보다 더 드센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진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혁명가들도 자신의 이름보다 혁명의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였으며 단결하였습니다.

1917년.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은 불타는 십자의 길에서 불세비키를 비롯하여 수많은 좌파 단체와 연대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10월 혁명을 이끌고 브레스트 억압에 대해서 투쟁하였고 혁명의 영광을 되살리려했습니다. 독일 제국주의, 헤트만의 폭력, 데니킨의 억압에 맞서서 우리는 소비에트란 사상과 생디칼-협동조합 연방, 사회주의 혁명과 최대주의 강령을 위해서 그동안 사소한 부분에서 달랐던 강령, 사상을 잠시 묻어두고 대신 우리와 맞았던 강령, 사상, 전술의 공통점을 찾아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과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은 다시 단결하였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두 조직은 이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통합으로 만들어진 협회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노동자의 승리는 투쟁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필요성을 의식해야한다.

노동자에게 주권이 있고 자유롭게 언제나 선출될 소비에트 공화국 형식의 노동공화국을 만들어야하며 노동공화국은 노동자 및 농민들의 대표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며 경제적으로는 모든 권리를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에게 주며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임을 알게한다.

2.노동에 대해서 당 혹은 조합의 독재를 거부한다.

대중이 진정한 노동 공동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하며 이는 포괄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성과 노동자의 자유의지에 맡겨야한다. 정치의 모든 형태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한 계급의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 사회의 기생적이고 비노동적인 기생충일 뿐이다.

3.권력 투쟁에 대한 연합의 완고한 거부.

연합은 오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권력투쟁이나 하면서 왕이나 뿔러는 이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조직. 오직 그뿐입니다. 생산과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과 농민 계급의 조직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의 최대주의의 입각한 소비에트 아래 모든 것을 노동자, 농민의 것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4.연합의 전술 통일.

더 많은 좌파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농민의 사회주의적 집회와 노동조합의 자유를 위한 공개적인 투쟁,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마지막으로 반 국가, 반 정부, 반 부르주아. 그리고 반 자본주의적 노동투쟁을 우리의 전술로 삼습니다.

5.우리 연합의 조직원칙은 완전한 조직의 통합.

좌파 사회혁명당과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좌파 조직간의 통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가는, 엄격한 규율로 잡힌 소련 공산당식 조직이 아니라 당 혹은 조합의 건설에 대하여 언제나 내부토론을 하며 상호간의 더 나은 방법을 출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6.세계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공화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아나르코 생디칼리스트) 조합원들은 국제적 규모로 연대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해야한다.

친애하는 동지분, 연합 회원분들, 농민분들, 지식인분들. 자신이 질 무거운 억압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저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앞날을 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승리한 땅에서, 정당에서 탈피하여 진짜 민주주의를 이룩한 사회를 위해서. 우린 여전히 "혁명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합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노동자 인민의 의지와 사회주의 혁명이 전세계에 퍼져우리길

Центральное Бюро партии ЛСР (объединенных)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и синдикалистов, Цент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иат Союза с. -р. - максималистов. Москва, 6 сентября 1922 года РГАСПИ. Ф. 564. Оп. 1. Д. 14. Л. 18-19 об. Машинопис. копия. ИНСТРУКЦИЯ О ПОРЯДКЕ ОБЪЕДИНЕНИЯ МЕСТНЫХ ЛЕВОЭСЕРОВСКИХ И МАКСИМАЛИСТ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РАБОТАННАЯ ЦБ ОБЪЕДИНЕНИЯ ПАРТИИ ЛЕВЫХ ЭСЕРОВ И СОЮЗА ЭСЕРОВ-МАКСИМАЛИСТОВ 7 сентября 1922 г.

(이 선언문 하루 전에 나온 것)

동지 여러분! 우리가 좌파 사회혁명당과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간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야하는지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겠습니다.

1.각 단체의 중앙 위원회는 좌파 사회혁명당-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 중앙 평의회로 통합됩니다.

2.각 단체의 지방 평의회는 중앙 평의회에서 다시 재조직합니다. 물론 기존 지방 평의회의 구성원과 이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합니다.

3.우리는 이 통합을 바탕으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바로 우리 연합의 첫 총회에서 말이죠[8]

[1] Эсеры-максималисты, 즉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Союз социалистов-революционеров-максималистов)은 사 1906년 기존 사회혁명당에 반발하여 탈당한 사회혁명당 극좌들의 조직이다. 이들은 아나키즘과 사회혁명당의 중간정도에 위치했으며 이들의 당 강령은 모든 산업을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귀속시켜 공유화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노동공화국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다. 1918년 좌파 사회혁명당 전러시아 의회에서 "노동공화국" 법안을 발의했으며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토대로한 민중의 총파업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했으며 1919년에는 이들이 분열하였으며 비슷한 시기 사회혁명당을 탈당한 "좌파 사회혁명당" 혹은 볼셰비키 좌익 반대파등에 합류하였다.

[2] 좌파 사회혁명당(통합)-국제주의자 및 생디칼리스트 및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이 연합이 만들어질 당시 이름이었다.

[3] 나로드니키를 의미함.

[4] 개혁적 마르크스주의(수정맑시즘)-혁명적 마르크스주의간의 연대로 탄생했던 2번째 인터내셔널. 하지만 "선거에 대한 참여여부"및 "제 1차 세계대전의 대한 반전, 찬전"의 대한 격렬한 토론 끝에 인터내셔널은 해체됨.

[5] 1922년 모스크바 사회혁명당원 재판이 일어나던 해.

[6] 1918년 노동공화국 법안을 얘기함.

[7] 사회혁명당 최대주의자 연합이 세워진 해

[8] 위에 적힌 선언문이 바로 그 선언문임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20531-deklaratsiya-tsentralnogo-byuro-partii-levyh-eserov-obedinennyh-internatsionalistov-i-sindikalistov-i-tsentralnogo-sekretariata-soyuza-eserov-maksimalistov-s-soprovoditelnyim-pismom-mestnym-partiynym-organizatsiyam-8-sentyabrya-1922-g#mode/inspect/page/5/zoom/4>